무더위 날릴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26일~8월 10일 연중무휴 운영… 다양한 시설 · 공연 · 이벤트 등 풍성

임실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 연중무휴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펼쳐진다.

임실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 연중무휴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초대형 그늘 돔(50m×30m) 시설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시원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체험 콘텐츠, 음악 공연, 이색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10미터, 길이 5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로 이벤트 광장의 계단을 활용해 설치했으며, 이 밖에도 대형풀, 중형풀, 유아풀, 중형 슬라이드 등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영시설이 마련됐다.

개막일인 26일에는 관악기로 편성된 브라스밴드 공연이 펼쳐지고, 현장 곳곳에서 2025 임실방문의 해 기념 및 임실엔TV 유튜브 구독 인증을 통한 룰렛 돌리기 등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돔과 에어컨 쉼터, 몽골 텐트, 파라솔, 캠핑 텐트 등 다양한 그늘 쉼터와 샤워실, 먹거리 부스 등 편의시설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8,000원, 임실군민 6,000원이다.

오후 2시 이후 입장 시에는 2,000원 할인이 적용되고, 입장권 구매 시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2,000원 상당의 교환권이 제공된다.

심 민 군수는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물놀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수질을 매일점검 할 것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상태 확인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유학 1번지' 박차

최영일 군수, 서울시교육청에 지원 협조 요청

순창군이 '농촌유학 1번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서울 지역 농촌유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최 군수는 "농촌유학은 교육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인구 유입까지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순창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거주시설이 잘 갖춰진다면, 서울시교육청도 더욱 관심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벼 병해충 예찰 활동 강화

임실군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막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9개 팀과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반을 편성하여 도열병 및 비래해충인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등의 발생 상황을 정밀 예찰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현장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예찰을 실시하고 현장 기술 지원도 병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백두대간 자생곤충전 특별기획전 개최

남원시는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자생곤충을 전시하여 곤충의 생태적 역할과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백두대간 자생곤충전'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청 등의 후원을 받아 녹색자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기획전은 백두대간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곤충 주제의 기획전으로, 50여 종 1,000여 마리의 백두대간 속 곤충과 곤충을 닮은 다양한 절지동물을 만날 수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함께 운영한다.

전시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곤충 표본 전시와 함께 백두대간을 누비는 다양한 곤충들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다.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 입장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광복절 정상운영)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입장객은 추가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시청 산림녹지과(063-620-5751~575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명존중 인식 제고' 앞장

남원시,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활동 펼쳐

남원시는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자살예방 집중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민 · 관이 협력하여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2023년 기준 남원시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1명으로 전국 27.3명, 전북 25.6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 ·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자살예방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원시는 모두가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는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소를 중심으로 경찰서 · 교육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의료기관 · 시민단체 등 14개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부터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기간의 핵심이다.

우선 실과소별 자살예방 대책 회의와 자살예방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고위험군 발굴 ·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으며, 남원경찰서와 자살 시도자 조기 대응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 분과 신설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존중재단 등과의 컨설팅을 완료하며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특히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강화에 주력, 읍면동에 우울 · 자살 설문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생명지킴이 경제상담소,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읍면동 사례관리망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등 맞춤형 자살예방교육과 상담 연계를 진행하고 자살시도자 사례 기반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보건소 강희동 정신건강팀장은 "시 보건소는 날로 증가하는 자살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명존중의 핵심 가치를 위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총력

순창군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부대, 지역단체 등 모두 힘을 모아 신속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침수 피해가 컸던 인계면, 풍산면, 금과면 일대 10여 곳의 피해현장에 공무원 70명을 투입, 주택 및 농가 등 실질적인 복구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피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주택 내 가재도구 정리, 하우스 내부 토사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순창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130명의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이들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현장에 투입돼 각종 정비와 청소,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큰 힘을 보탰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7733부대 3대대 최영배 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40명이 참여해, 풍산면 소재 한 고령 주민 주택에 대한 대민 복구 작업이 실시됐다. 군 장병들은 주택 마당의 토사 제거와 내부 물품 정리 등 복구에 힘을 보탰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도 현장을 찾아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복구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양지천과 경천 일원에서 지역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하천 정비 활동도 진행됐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강천산 말벌 쏘임 사고 헬기 긴급 이송

순창소방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정상 부근(해발 약 620m)에서 등산로 예초작업 중이던 남성이 말벌에 쏘여 어지럼증과 기력저하를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말벌에 쏘인 뒤 급격한 증상을 보였으며, '목이 굳어감', '기도가 막히는 느낌', '온몸 발진', '목 부종' 등의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을 호소해 긴급한 구조 및 의료조치가 필요했다.

순창소방서는 119구조대와 구급대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으며,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오전 11시 10분경 강천산 정상 부근에서 환자를 구조했다.

헬기로 강천산에서 하산한 환자는 순창공설운동장에 착륙한 뒤,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순창의료원에 이송되었다.

다행히 환자는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순창의료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휴가철 홍역 감염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025년 7월 5일 기준 총 6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는 46명(70.8%)이며, 베트남 42명,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탈리아, 몽골 각 1명이며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